



2026 제주도교육청 학생기자단

걷고 듣고 체험하며 자연스레 배우는 ESG

지난달 '제주 수변공원 ESG 축제' 개최
플로깅·테우 등 체험활동에 버스킹까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제주시 외도동 월대천 일원에서 '2026 제주 수변공원 ESG 축제'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축제는 ESG(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협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환경 보전과 지역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월대천 행사장에서는 플로깅과 테우체험, 수변 생태교육 등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연대포구 근처 야외 공연장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공연에는 해피댄스, 제주대 기타동아리, 반하크라, 해피밴드 등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버스킹은 폭염으로 당초 예정보다 한 시간 늦게 시작됐지만 공연이 시작되자 관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음악을 감상하며 여름 저녁을 즐겼다.

좌옹관 제주위드뮤직 대표는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는 매우 신선하고 유쾌한 프로그램이었다"며 "지역 음



악팀들과 함께 소통하는 버스킹 공연은 주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축제는 환경보호를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걷기와 체험,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접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가족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플로깅과 수변생태교육, 생태체험은 환경보호를 생활 속 행동으로 잇는 기회가 됐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의 환경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배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양하윤 학생기자
〈제주여자중학교 1학년〉



바르게 제주시협의회 공정가격 확립 다짐

바르게살기운동 제주시협의회(회장 강대규)는 지난 8일 라이온스 대연회장에서 '휴가철 공정가격질서 확립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임원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관광객과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전한 관광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새마을지도자 제주시협 8월 운영위원회의

새마을지도자 제주시협의회(회장 고성영)는 지난 7일 연동주민센터에서 박지은 도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농협 농가주부모임 미니단호박 나눔

환경농협(조합장 김군진)과 환경농협 농가주부모임(회장 김양숙)은 지난 7일 환경농협 하나로마트 출입구에서 관광객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환경지역 농산물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사랑의 미니단호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회원들은 판포리 포구와 신창해안도로 등 한경지역을 찾은 관광객과 하나로마트 방문객 700여 명에게 미니단호박을 나눠주며 지역 농산물을 적극 홍보했다.

김양숙 회장은 "이번 행사는 관광객들에게 제주 농촌의 따뜻한 정을 전하는 지역 상생의 장이 됐다"고 했다.

이미정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임용

서귀포시는 서부보건소장 개방형직 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지방보건주사 이미정(현 서부보건소 보건행정팀장·사진)을 최종 선발하고 10일자로 직무대리 임용했다.

이미정 신임 보건소장은 20년 이상 공공보건 분야에서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사업, 모자보건사업, 비상진료대책 수립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보건행정 전문가로서 서부지역 보건으로 업무 전환을 총괄한다.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위생관리과 위생지도팀장,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장 등을 역임했다.



장찬우 씨 축산학회 포스터 발표 장려상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장찬우 학부연구생(동물유전체육종학실·사진)이 최근 '2026년도 (사)한국축산학회 국제 연합심포지엄 및 학술발표회'에서 포스터 발표 장려상을 수상했다.

장찬우 학생은 이번에 '제주마의 혈통 분석 및 유효 집단 크기 추정' 주제 연구를 포스터로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마의 혈통 자료를 바탕으로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유효 집단 크기를 추정했으며, 천연기념물이자 제주 고유 유전 자원인 제주마의 유전적 다양성 관리와 보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



제31회 표선해변 하얀 모래 축제 성료

서귀포시 표선면(면장 문철환)은 지난 8~9일 표선해수욕장에서 '제31회 표선해변 하얀 모래 축제'를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 약 1만8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축제는 탁 트인 푸른 바다와 눈부신 하얀 모래사장을 배경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풍성한 먹거리, 문화 공연이 어우러져 표선면민과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날의 추억을 선사했다.

금세훈 표선리장은 "표선해변 하얀 모래 축제는 표선면민과 관광객이 하나 돼 즐기는 뜻깊은 축제"라며



"앞으로도 표선만의 매력을 담은 지속 가능한 축제로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엠버뷰어힐 호텔&리조트 비엔날레 후원

'엠버뷰어힐 호텔&리조트'가 제주도립미술관(관장 이종후)이 주최하는 2026 제5회 제주비엔날레 후원사로 참여한다.

10일 도립미술관에 따르면 엠버뷰어힐 호텔&리조트는 이번 후원을 통해 제주비엔날레 참여 작가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호텔 내 홍보물 비치 등 비엔날레 홍보에 협력한다. 또한 투숙객을 대상으로 제주비엔날레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전시 관람을 연계할 계획이다.

엠버뷰어힐 호텔&리조트 측은 "참여 작가들의 창작



활동과 제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국제와이즈멘 제주지구 비양도 해안정화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제주지구 제주클럽(회장 김철신), 백록클럽(회장 강승중), 뉴제주클럽(회장 정근식), 옴름클럽(회장 정경심)은 지난 8일 한림읍 비양도에서 합동 해안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제주지구는 정기월례회를 봉사월례회로 구성해 '사랑한다, 비양도'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섬 비양도를 만들기 위해 해안정화 활동을 벌였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은 비양도 일주 해안선을 따라 정화활동에 나서 페어구와 스티로폼, 페트병 등 각종 폐기물 등 1.5t가량을 수거했다.



제주<=>베트남전세기 3박5일

10. 3(토,밤출발) - 10. 7(수,아침도착)

하노이, 하롱베이

1,290,000

하노이, 사파

1,390,000

제주<=>일본전세기 3일

특별한 가을 여행

오кина와

10.16(금)-18(일)

구마모토

10.31(토)-11.2(월)

1,099,000

※양국정부인허가조건※

제주<=>항주(룽에어)

매주 목요일 | 10명 이상 출발 | 3박4일

노팁! 노옵션! 노쇼핑!

항산 1,199,000

오진 1,199,000

상해 1,099,000

가을 항산 4인 출발확정

10.8(목) - 11(일) 1,249,000(현금날연회) • 11.2(월) - 5(목) 1,199,000

제주직항 없을 때는 청주경유가 최고!

제주<=>청주<=>장가계

장

9월 특가 (노옵션)

3박4일(토)

4박5일(화)

849,000

제주<=>청주<=>베트남

베

3박5일 (노팁,노옵션)

다낭&호이안

750,000~

나트랑&달랏

제주<=>청주 국내선 별도